

# 영암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 실시

### 인증기준·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 중점 교육 잔류농약 검출로 인증취소 면적 감축하고자 실시

영암군은 지난 6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인 36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잔류농약 검출, 비의도적 오염위험 등 농업인 의식 미흡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취소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사항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2021년 기준, 영암군 친환경인증 면적은 3,468ha이었으나 전년 대비 386ha가 감소하였다. 그 중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친환경 인증취소 면적이 208ha로, 감소면적 중 54%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내실있는 친환경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군은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취소 면적

을 감축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과 병행으로 친환경농업인 의무교육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군은 4월 중 12일, 22일, 27일, 3일에 걸쳐 추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 현장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암군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에 바란다."고 말했다.



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대부분의 농가 외에 일부 친환경농업인과 방제업자의 자부심과 사명감 결여로 인증취소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기준 등을 준수하여 영암군의 친환경농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첫 모내기 실시

영광군은 지난 11일 군남면 반안리 정권옥(46)씨 논 약 7,000평에서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모내기는 전년에 비해 약 4일 정도 빠른 것이며 이날 모내기한 벼는 8월 하순에 수확하여, 추석 전에 전량 직거래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생종 벼는 일찍 이앙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오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어 벼가 쓰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확 비용 증가,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고, 추석 전 햅쌀 출하로 높은 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격적인 못자리 시기를 맞아 농가에서는 벼 키다리병이 생기지 않도록 병해 소독과 육묘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기 모내기 지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이날 모내기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약 9,900ha의 논에서 모내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목포시, 전남도 드론 나이트쇼 공모사업 선정

#### 9~10월 북항 노을공원 개최...평화광장 목포해상W쇼와 시너지 기대

목포시가 전라남도 드론 나이트쇼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연계해 도내 야간경관과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도는 공모사업 대상지 1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관광·축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기대효과, 지속가능 방안 등에 대한 제안 발표 평가를 거쳐 목포시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북항 노을공원에서 드론 나이트쇼 행사(가칭 목포노을 :D쇼)를 개최할 계획인데 서해 노을을 배경으로 석양을 좋아하는 어민양자를 스토리텔링한 드론쇼와 미디어파사드 등을 선보

일 예정이다.

'목포 노을 :D쇼'는 ▲Drone 전남, 목포의 관광 및 미래산업 ▲Dance 서남권의 흥과 멋을 드론쇼로 표현 ▲:D 아침부터 밤까지 즐거운 목포관광을 미소로 형상화 ▲Delicious 맛의 도시 목포와 전남의 맛 등을 의미한다.

시는 드론 나이트쇼가 북항 노을, 유달산,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대교, 9미(味)를 즐길 수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등 복합권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사업과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 단발적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야간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해상W쇼라는 전라남도의 대표 야간관광콘텐츠를 가진 목포가 드론 나이트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야간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계기를 마련했다. 위치적으로도 평화광장의 신도심과 노을공원의 원도심에서 각각 개최되는 야간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 나서... '마을정비조합' 조직

#### 빈집 실태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함평군이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 정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1만 8천여 가구 중 빈집은 2천4백여 동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992년부터 30년간 1,444채의 빈집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 평균 다섯 채의 빈집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군은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주민 자율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마을 정비계획을 고시하면, 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마을의 토지나 건축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군은 향후 마을별 빈집 실태조사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3개의 행정리별 '마을정비조합' 조직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특색 있는 마을 개발을 위해 농촌협약, 도시재생 등 기존 국책사업을 활용한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신규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카페, 갤러리, 공동작업장 등 문화기반과 소득창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 무안군,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 자살예방 홍보 실시

무안군은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를 맞아 자살예방과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잠재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발굴, 자살 고위험군의 집중적 사례관리, 안부문자와 전화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센터로 연계된 대상자에게 우울증 스크리닝 진행 후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옥외전광판 LED 전자 게시판 등을 통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이 기재된 정보 안내를 할 방침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LPG 보급으로 신안 임자도 회산마을 주민 도시가스 혜택 누려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식

신안군은 8일 임자면 회산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임자면 회산마을 저장탱크 부지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방여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원,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가스저장탱크와 지하 배관망을 통해 LPG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취사·난방 부분에서 도시가스와 같은 편의성이 제공된다.

회산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



75세대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기존 LPG 용기를 사용할 때 보다 약 30% 이상의 연료비 절감과 가스보일러, 가스안전장치 등이 설치

되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